

로저 발렌 Roger Ballen

로저 발렌은 195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가이자 영상 작가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광기, 고독,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부단히 드러내왔다. 그는 기존 미술 제도와 문화적 규범의 바깥에서 탄생한 낯것의 예술인 '아르 브뤼'와 맥을 같이하며 본능과 무의식이 이끄는 작업 세계를 구현해왔다.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점차 현실과 연출, 사진과 드로잉, 인간과 동물, 질서와 혼돈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시각 언어로 발전했다.

작가가 '발레네스크'라 부르는 미학은 그의 고유한 조형 언어이다. 극도의 형식주의적 미학 아래 동물과 사회적 주변부의 인물들, 현실과 환영, 삶과 죽음, 드로잉과 회화, 사진과 조각이 뒤엉킨 비현실적이고 밀폐된 공간이 펼쳐진다. 이러한 장면들은 인간 내면의 불안과 원초적 충동을 탐구하는 무대로 기능하며, 심리학과 지질학을 전공한 배경은 이 세계를 치밀하게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사진과 영상 예술의 중요한 성취로 평가받으며, 세계 주요 미술관과 국제 전시를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Roger Ballen (b. 1950, New York, USA) is a photographer and video artist base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Throughout his career, he has explored the unconscious, madness, solitude, and the afterlife. Resonating with the spirit of Art Brut, he has developed a singular visual language guided by instinct and the unconscious. Beginning with documentary photography, his practice has evolved into a distinctive body of work that dissolves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photography and drawing, humans and animals, order and chaos.

What Ballen calls the 'Ballenesque' is a unique visual language. Within this rigorously formal aesthetic unfolds a absurd, claustrophobic world where animals and social outsiders, reality and illusion, life and death, drawing and painting, photography and sculpture converge. These enigmatic scenes become stages for exploring the anxieties and primal instincts of the human psyche. Ballen's background in psychology and geology, forms an essential foundation for this meticulously constructed world.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moving-image art, Ballen's work has been exhibited extensively at major museums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worldwide.